

## 여름 캠프 준비는 거북이 마음으로!

오웅 요한/인터넷 주일학교(www.isundayschool.co.kr) 운영자

주일학교의 꽃은 분명 '여름 캠프'이지만 여름 캠프는 교사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시간 먹는 하마'이기도 하다. 여름 캠프를 무사히 다녀온 후 교사로서의 만족감은 캠프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보상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만족감을 얻기에 앞서 여름 캠프를 잘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교사 간의 불화, 신부님과 학생들과의 불화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하나. 거북이의 마음으로 여름 캠프를 준비하라.

경력교사에게 여름 캠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잘 치러 보겠다는 중압감은 조금함으로 이어지고 짜증과 잔소리로 교사들을 대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맡은 교사들은 여름 캠프가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회합 시간에 늦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저런 많은 이유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 여름 캠프를 무사히 마친 후에도 교사 간의 상처로 남아 교사회를 그만두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교사들을 믿어라. 만약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두려워 마라,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비가 와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영성하게 겨우 만들었지만 학생들에게 오히려 즐거운 캠프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꼭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완벽한 여름 캠프 프로그램보다는 교사 간의 단결, 신부님, 수녀님과의 신뢰, 학생들과의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 느긋하게 여름 캠프를 준비할 것을 권하고 싶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 거북이와 같은 느긋한 마음으로 여름 캠프를 준비하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화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 둘. 실수하는 교사가 아름답다.

본당에서 교사를 했던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나도 꽤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였던 것 같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수도 많았던 교사였다. 그러나 오히려 실수하는 내 모습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갖는 경계심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교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라. 학생들의 마음은 열릴 것이다. 특히 야영지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다가간다면 학생들과의 깊은 신뢰를 쌓게 될 것이다.

여름 캠프는 교사와 학생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학생에게 다가가라. 여름캠프가 끝나고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 셋. 학생들에게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맡겨라.

나는 학생시절과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여름 캠프를 다녀 보았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연히도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어설피고 실수가 섞인 진행은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정말 살아 있는 프로그램 이상이었다.

학생들에게 1, 2개의 프로그램을 맡겨 보라. 교사의 부담도 줄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도 깊어지고 학생들의 주일학교 사랑도 커질 것이다

여름캠프를 떠나기 전에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자. 학생 모두가 즐거운 여름 캠프가 되게 해 달라고.